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그 피해를 들여다보다 ...

2012년 별별신문에서는 '성매매여성 인권을 생각해보기 위한 기획기사'로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일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①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안전의 문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②선불금 사채시장, 즉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제기합니다. 기획기사는 ③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불리한 노동계약조건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별별신문] 싸리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생관계

성매매와 사채시장은 전통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초로 형성되는 빚은 이젠 업주가 아니라 사채업자에 의해 형성된 지 오래 되었고, 처음부터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사채 빚은 성매매로 유입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에 머물게 만들면서, 동시에 성매매 업소를 떠난 여성들을 붙잡는다. 그런데 선불금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전통적인 관계 방식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이 무효화되는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합법적 사채시장이 전보다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즉 "조건없이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이상한 대출관행이 대중화, 일상화 되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사채업자들이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뿐이라는 점이다.

사채업 팽창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현주소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사채업자 또는 일수업자를 불러들여 대출부터 해준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1,0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성형비나 월세방이라도 얻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여성의 급여는 대부분 "빚 갚는 돈"으로 지출된다. 더구나 유흥업소는 매일 현금인 도는 곳이기 때문에 일수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에도 매우 좋은 조건이다. 일수업자만 이런 과정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 유흥업소 업주는 여성을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곳에 데려가 '자신이 보증을 서 줄 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랬을 때, 저축은행도 여성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으니 그들도 이 과정에 공모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일수업자는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챙

선불금 채권을 사들여 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은 선불금 채권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여성에게 빚변제 독촉을 해 본다. "일단 쪼아보고"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특히 과거 성매매 경험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 여성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내주게 되니까 말이다...

긴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여성은, 매번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수업자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고맙고 긴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수업자는 수수료나 이자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복대출을 할 뿐이지, 여성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채업자들의 횡포, 성매매 여성의 약점 들추기

굳이 유흥업소에서 부르지 않더라도, 사채업자 홀로 성형비를 대출해준다거나 방보증금을 대출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여성에게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옷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외상값이 10년이 지나서도 '채권'의 형태로 청구되기 일쑤다.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의류업체는 이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권관리부'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선불금 채권을 사들여 전직 성매매 여성들에게 채권추심을 강행하는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은 선불금 채권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여성에게 빚변제 독촉을 해 본다. "일단 쪼아보고"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아

니면 말고" 식이다. 특히 과거 성매매 경험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 여성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돈을 내주게 되니까 말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미 다 갚은 돈을 내 놓으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차용증을 쓸 때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면서 이러한 '백지 차용증'이 남발되었는데, 채권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빚독촉을 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법을 비웃는 일수업자들의 높은 연이율 책정도 문제다. 이자율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여성들에게 일수업자들 방식으로 이자율을 정해 놓고 계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들 역시 꼼꼼히 따져보면 불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 사채업자들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점을 악용하여 여성 당사자 모르게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이어서 불법인 채권에 해당하는데, 등록된 사채업자의 자격으로 무조건 채무불이행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채권 때문에 여성은 몇 년이 지나도 괴롭다. 사채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이 산업에 대한 규제나 감시, 감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332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 '12. 4.18 ~ 5.31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가 아니라 “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로 따져보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기 전에, “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라

는 질문의 전환으로 유홍업소에 기생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고, 어떤 탈법,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감

시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 계약이행시 불공정한 관행과 무분별한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고, 유홍업소에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며, 각종 채권추심회사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근절, 특히 ‘전직 유홍업소 종사자’라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엄격한 처

벌규정과 실행까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조정하고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보와 자원이 부재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목돈 때문에 유홍업소에 취업하게 되는 환경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와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리의 대출상품이 가중한 대안적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사채업자와의 분쟁,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갚을 때까지 모든 증거와 기록을 남겨두세요!
둘, 보증인 서약, 대리변제, 공증, 빚 돌려막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셋, 빚 때문에 연락을 끊지 마세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나 무료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적”은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웁니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름] 02.953.6279

돈을 빌릴 때:

1.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등록·무등록 대부업 여부, 법정 이자율을 지키고 있는지, 돈을 빌리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문서 기록 등을 챙기자.
2. 백지차용증을 쓰지 말자. 대부분 채권자 정보를 안 쓰고, 여성들만 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판지를 걸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그 상황을 녹음해두어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자.
3. 돈을 되도록 계좌 입금을 통해 갚도록 해서 기록이 남게 하고, 현금으로 갚아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유홍업소를 그만둔 후, 뜬금없이 빚 독촉이 들어올 때:

1. 채권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차용증, 대부계약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업소와 관련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될 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다.
3. 일반 채권일 때, 빚 상환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한다. 은행 거래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사채업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법정 이자율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 무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0%, 등록 대부업은 연이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2. 금융감독원 일수계산기로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라.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업자가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올 때:

1.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사항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채무 사실을 가족 등 제 3자에게 알려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행위, 빚독촉하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송태경, 2011, 『대출천국의 비밀』 부록〉

이 달의 속.풀.이.

언니들에게도 초이스와 뺨찌를 허하라!



[별별신문] 강

그들의 항변...

[퍼옴] 방문화 소개 사이트

“보통 우리가 비판 돈 내가며 림을 달리는 이유가, 뭘
까요? 비즈니스 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의 시중을 받으며 한 잔 술에
시름을 잊고 잠시나마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
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밖에서는 하기 힘든 상황들을 비용을 지불해 가며
일종에 상황을 사는 것이죠.

술이야 무엇을 마셔도 취하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내
옆에 파트너가 안 예쁘다던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맞는다던지, 아니면 선수자세가 불량하고 매너가 썩
인 언니들이라면 그 술자리는 재미는커녕 이미 당사
자에게는 볼 쟁 다 본 자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즉 초이스는 술자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초이스에 목숨 걸고 막판 뺨찌도 불사하는 손님은 왕이 아니라 개진상!”

“여자 장사는 아가씨가 예쁘면 장땡이
다.”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텐프로,
텀오, 클럽, 미시촌 등등 아가씨들 와꾸
와 사이즈로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다양
한 업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리도 다양한 업
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안목
들이 까다로우신지 초이스에 목을 매는
찌질함을 맘껏 뽐내며 진상반열에 오르
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 아가씨들을 세워놓고 누가 이쁜지,
누가 섹시한지, 누가 잘 주게 생겼는지
를 순간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느낌이 가
는 파트너를 선택하면서 ‘초이스가 반’
이라는 등, ‘3초의 미학’이라는 등, ‘초이

스 잘 하는 ‘비법들’을 그네들끼리의 술
자리나 인터넷사이트에서 공유하기도
한다.

초이스 한답시고 가게 아가씨들 전부를
들락날락거리게 만들고 원정 온 옆가게
아가씨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소위 ‘초이
스 진상’들은 돈이 장패라고, 손님 대접
은 해주지만 업장과 언니들에게 “꼴불건
개진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
겠다.

이렇게 온갖 유세를 떨어가며 고른 언니
를 피아노, 물빨래라고 주물럭거리다 막
판에 뺨찌 놓는 최강 진상까지, 언니들
에게는 초이스와 뺨찌까지 이어지는 조
마조마한 시간들이 이어진다.

이러니 초이스 실패해서 ‘내상’(아가씨를
잘못 만나 당하는 고통)을 입었다는 성
구매자들 소리가 징징거리는 잡소리로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스트레스를 네놈들은 알까?”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보다 더 떨리는
것 같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공들이고,
옷도 예쁘게 입고 ‘쌍패하게’ 출근한
하루인데 개시시간이 다가오면 맘이
영 편치 않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초이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아야 오늘 수입
도 오르고 일할 맛도 날 텐데, 지명이

나 철저한 순번제가 아닌 다음에야 초
이스 앞에서는 오로지 내가 선택되는
나 옆에 아가씨가 선택되느냐 밖에 없
다.

앞 조에서 초이스가 끝나버릴 수도 있
고 실컷 눈요기만 당하고 정작 테이블
은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손님들이야 자리에 앉아서 주욱 훑어
보고 몇 번, 누구 선택하면 그만이지
만 손님 눈에 들기 위해서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처럼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1분이 10년처럼 느껴지

기도 한다.

연예인 누구처럼 코랑 턱, 가슴을 손
뽐다는 A는 쉽게 초이스가 되는 것 같
은데, 이 참에 나도 성형견적을 내봐
야 하는 건지 같은 시간 동안 나와서
노력하고 일하면서 초이스 안되고 수
입도 차이가 나니 자존심도 상하고 사
람이 못난 것 같은 기분이다.

자꾸 얼굴을 손보자는 마담 언니 말에
솔깃하고도 하고 ‘초이스 미션’이라
게 존재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에이스
는 못되더라도 초이스 안되고 뺨찌는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람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건가.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계속 다이어트
약을 먹고, 성형외과 정보를 들여다
보면서 머릿속으로 손익계산을 하다
보니 느는 것이 스트레스 뿐이다.

술 쳐먹고 연예질 한번 하러 오면서
특권이나 되는 양 하는 행동들이 주는
스트레스를 네놈들은 모를 것이다.

4면으로 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오소리뽀?!

-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하는 업체
- 무조건 외상을 주고 이후에 이자까지 철저하게 물리는 채권추심으로 여성들을 괴롭힘
-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들도 찾아내어 불안감을 야기함
- 겉은 의류업체이지만 하는 짓은 대부업체

의류업체인 “오소리뽀” 채권부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거나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요기로 상담하세요~! 010.8230.6279



이 만화는 여성주의 언론 [일다]의 박희정 님이 재능기부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언니들에게도 초이스와 땀찌를 허하라!”
3면에서 이어집니다.

“척! 보니 너 꼴통에
변태 새끼 같구나.
뻔뻔지 머정! 두 번 머정!”

징그럽게 실실거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생긴
거는 불량감자처럼 생겨서 하는 짓도 진상인 손
님에게 시원스레 대응 할 수는 없을까?
업소 아니면 여자한테 함부로도 안 할거면서 2차
가면 지 비위 안 맞춘다고 때릴지도 모르는데 초
이스 해주고 뻥치 안준 것으로 감사하며 손님 옆
에 앉아 있어야 하는 줄 아나 보다.

언니들에게도 초이스가 있다면 대한민국 업소 출입 손님 중 절반 이상은 탈탈 털어질 것이다. 서비스 받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이나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오는 힘 자랑하는 놈들, 언제 다시 볼 거라고 호구조사하고 있는 오지랄 쟁이들도 바로 바로 뺌지 놓고 그러면 언니들 일하기도 참 좋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이제 언니들에게도 초이스와 뺌지를 허함이 어떨까!



찾아가는 타로상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착한 애인 만나 행복하고 싶다”,
 “나에겐 언제 기회가 올까?”
 등등 인생의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힘드세요?
 신비한 타로 카드로 상담해 드립니다.
 여기로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10.8230.6279

타로 1회 상담 5,000원



“7년”의 편지

이 기사는 주희(가명)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그 광고지 몇 장들..

저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놓고 많은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알려준 중국 연락 전화번호를 위안삼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이따금씩 연결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내긴 했지만 그 역시 해답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공간 그 역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월세와 하루하루 일수를 찍고 있었습니다. 일수를 며칠만 밀려도 초인종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을 꿈쩍없이 방에 숨어있었는데 한 시간 가량 초인종을 눌러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중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이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거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얘기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광고지 몇 장을 뽑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큰

박스 광고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선불가능·숙식제공이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배달하고, 일수찍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저의 집 근처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분과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한 뒤 경기도로 떠났습니다. 가게는 지하이고 꽤 넓었습니다. 벽이 돌로 되어있어 참 시원했습니다. 깨끗했고 주인 언니의

인상은 서글서글하고 손님한테 참 예의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다방을 처음 운영한다 했습니다. 선불금은 몇일 있다가 준다고 그러자고 하고 지하에 있는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 꽤 많았습니다. 가방으로 5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아가씨도 저하고 함께 온 삼촌이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삼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주인 언니의 험담도 빼놓지 않고, 저는 이를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가 지하인데다 모기가 많아 잠을 설치더니 몸이 무겁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가게의 전화벨은 쉼 없이 울려댔습니다. 군청 앞에 위치한 탓인지 배달도 많고 손님들도 점잖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주인 아저씨가 카맨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저는 주인아저씨하고 배달을 다니다 아침 11시쯤이 되면 주인언니하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주로 저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보자기는 주방이모가 쌓아놓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가게였습니다. 오후에는 입금제로 일하고 있는 언니 한분이 출근을 하십니다. 이 언니는 서울에서 왔다했습니다. 이곳이 고향처럼 좋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두세살 위인 것 같은데 키가 작아 동안으로 보였습니다. 이 언니는 주로 커피말고 냉커피·냉 위주로 배달을 갔습니다. 주인 언니와 배달을 가면 먼 곳으로 가는지 한참 있다 오곤 했습니다. 베테랑이라 요령껏 일도 잘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초짜라 재미있기도 하구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입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예쁜 옷도 사입을 수 있고 밀린 일수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도 모두 잊어버리고 이곳이 좋아졌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주로 배달을 가고 짬짬이 티켓을 나가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3시까지 노래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수입이 생기니 재미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한 사랑애가 붙어나는

저는 그러는 사이 가깝게 지내는 오빠가 생겼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오빠가 저의 힘든 타지 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오빠는 손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참 편했습니다. 제게 돈이 없어도 언제나 만날 수 있

는 오빠였습니다. 휴일이면 개울가에 가서 물장구를 치고 놀았습니다. 무엇보다 운전하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없지만 소탈하고 꾸밈없는 착한 심성이 저를 매료시켰던 것 같습니다. 매일 봐도 지겹지 않았고 보면 볼수록 더 진한 사랑애가 붙어나는 기분 아마도 모를 겁니다. 그 오빠는 재혼이었고 자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같으면 가정이 우선이었겠지만 이 오빠는 제가 우선인 듯 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행복해했고 편안해했습니다. 저 또한 편의를 주고자 티

켓비를 물지 않는 퇴근 후에 만나 밀애를 즐겼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푸념을 늘어놓으면 다 들어주고 말없이 웃고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가 좋았고 저희들의 관계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아침 8시가 되면 배달이 시작되고 첫 거래처는 문구점이었습니다. 이 거래처는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 3잔을 시키고 한 잔은 저를 마시라고 배려를 해주십니다. 기분이 좋으면 수첩이나 볼펜 같은 것을 선물로도 주시고요. 하지만 이 손님의 마음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중후한 50대 후반의 재력도 있고, 아무튼 참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달이 들어오면 늘 긴장했습니다. 커피를 타는 사이 손이라도 만져주면 심장이 멎은 듯 행복했습니다. 문구점은 부인이 운영하고 계셨고 이 분은 군청 근처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에 대한 내 감정은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커피 3잔을 쌓아가지고 계단을 올라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분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저는 침착하게 커피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벗더니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척 바빴습니다. 그 이후론 그 거래처에서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티켓다방의 시작을 아무 의심 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7년간 계속했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암담한 미래. 잠자면 잊혀지겠지 하고 잠만 자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물건과 사건을 둘러싼 요상하고 망측한 것들
에 대한 거침없는 망상과 판죽질기!



풍식~ 풍식~ 풍식~
속! 속! 속!

언니들이 손님을 받을 때 들려오는 정
체불명의 소리!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
른다는 이 소리!

별별신문을 보고 계신 언니들은 공기
반 소리 반이 오묘하게 섞여 있으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 소리가 도
대체 뭘지 감이 잡히시나요?

주로 50대 이상의 할아버지 연령대 남
성들을 상대하는 쪽방(하꼬방) 언니들
은 필수 아이템으로 하나쯤 갖고 있다
고 하는 바로바로바로 '남근 직립 펌

프/음경 발기 펌프/남근 펌프/남근 확
대 펌프'등 몇가지 이름을 가진 일명
'발기뿔뿔'이 내는 뿔뿔 소리랍니다.
보통 요런 모양으로 생겼지요. >.<



이름에 걸 맞는 모양을 가졌지요. 사
용하는 방법은 단순한 모양답게 어렵

지도 않죠.

본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의료기구
이나 성관계 전 빠른 시간 내 발기를
원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약
해지는 남성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
면서 성인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답니다. 강제로 혈관을 팽창시키는 과
정에서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섹스를 하고 싶은 나

이든 남성들은 어떻게든 발기를 시키
고 싶어하나 봐요. ^^::

그래서 뿔이나 유리방 등 젊은 언니들
이 일하는 곳보다는 나이 든 언니들이
손님을 상대하는 곳에서 아주 유용한
물품으로 상비하고 있지요.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
다는 발기뿔뿔기계는 참 요망한 물건
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별별광고

상담은 [이룸]에서! 02.953.6279 www.e-loom.org 온라인상담 비밀게시판

[이룸]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로서,

선불금 문제, 사기기사, 고소, 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고소장 작성, 조사동행, 변호사선임 등)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생긴 질병(산부인과, 내과, 외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
료지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직종을 바꾸거나 안정적인 취업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은 관련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별에 담아내는 인생보따리' 코너는
여러분의 인생보따리로 채워집니다.

유흥업소 취업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울리고 웃기는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eloom2003@naver.com



살살 정보

긴급지원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먼저 지원을 한 후에 대상여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

- 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긴급지원사업 지원 기준

1.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단 생계지원의 경우 100%
2.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3.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긴급지원사업의 지원내용 (2011년 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973천원(4인가족)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361천원 (중소도시, 3~4인가족)	6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204천원(4인가족)	6회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등 수업료 등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다음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74만원 - 해산비, 장제비, 전거요금 : 60만원(1회)		1회 (난방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생계지원비만 현금지급, 나머지는 지급처(병원, 학교 등)로 바로 지원

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방문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긴급지원사업 외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한국빈곤문제연구소**(☎1588-9412)에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방식의 다른 권리를 말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획포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일하다가 손님한테 맞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티켓영업과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오히려 신고한 여성이 피의자가 되는 현실, 폭행, 성폭력, 절도, 살인까지... 일하면서 당하는 위험경험들. 이런 현실에서 옆에 동료는 개인적으로 나름의 “안전지침”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다닌다. 호주는 성노동자들의 공식적 안전지침이라는 게 있다... 우리도,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말할 수 있을까...

1차 기획포럼

일시: 2012년 6월 28일 14: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 해체는 불가능한가.

사채 빚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채 빚을 조장하는 사회적 구조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란단. 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업체의 횡포, 불법 연이자율, 사채업 확장에 대한 국가의 방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2차 기획포럼(잠정)

일시: 2012년 7월 19일 14: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노동조건은 개선될 수 있는가.

성매매 업소에는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많다. 출근비, 지각비, 결근비는 어느 노동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행이다. 선불금 빚 갚느라 실질임금은 얼마인지도 모른다. 처음엔 대인서비스만 하는 데인 줄 알고 갔더니, 2차(성매매)를 하란다. 이런 건 “허위 구인”에 해당된다고 한다. 계속해서 처음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들이 업주와 마담들 마음대로 생겨난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자유롭게 없다. 휴가도 병가도 없다. 불공정한 근로계약,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

3차 기획포럼

일시: 하반기, 장소: 미정

고마담의 고민살롱

“고마담, 그는 누구인가!”

고마담은 선불금은 주지 않지만, 아가씨들 가슴 한 칸에 놓여진 ‘마음의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웬지... 고마담은 바쁩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인간사 너무 복잡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할 것도 많답니다.

그러다 별첨신문 원고를 ‘핑크’내고 말았습니다. “좀 봐달라”고 미소짓는 고마담을 보며, 다음 호에도 ‘핑크’를 내면 고마담의 실재를 까발리는 기사를 실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고마담의 고민살롱”. 이번 호는 쉬어갑니다 ^^;

고마담의 심리상담!
010-8230-6279로 ~~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드는 안전지침



- 2차는 모델로만 나간다.
: 아무리 친한 단골이라도 손님의 집으로는 절대 2차를 나가지 않는다.
- 모텔에서는 무조건 1층에 방을 잡는다.
: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카운터에서 듣고 달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가장 좋다. 항상 이용하는 모텔이라면 미리 주인과 사용할 방을 약속해 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카운터에 말해서 1층 방을 요구한다.
- 모텔 방문을 절대 잠그지 않는다.
: 손님 먼저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뒤에서 문을 닫고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는 척만 한다. 방문, 현관문 모두 잠그지 않아야 위급 상황 시 빨리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선제압을 한다.
: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룸에서와는 달리 태도가 돌변하냐?"고 묻는 손님에게는 "오빠, 룸에서는 오빠 친구들고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 손님이니까 최대한 서비스하는 거지만, 여긴 우리 밖에 없으니 그럴 필요 없잖아"라고 말할 것. 고분고분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꼭 알린다.
- 집어 던질 수 있는 물건(예: 모텔전화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 위급한 상황에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큰 소리를 내야 한다. 모텔 내에 비치된 물품 중에는 전화기가 던지기도 좋고 부서지는 소리도 크게 난다.
- 익숙하지 않는 지역의 모텔로 2차를 갈 때는 꼭 모텔 주변의 큰 건물을 기억해둔다.
: 주변 지리를 잘 모를 때는 건물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은행, 가게 등 위급한 상황에서 내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외워둔다.
- 주변 사람에게 일정시간 이후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달라고 당부한다.
: '00시 이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꼭 전화를 해라', '전화를 수신거절하지 않고 안 받으면 나를 찾으러 와라'라고 미리 당부해둔다.
-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둔다 :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을 둔다.
- 손님보다 먼저 샤워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었던 여성의 동의 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